

“차례상 비용 34만원”...과일값 오르고 소고기 내려

전통시장 26만원 대형마트보다 22% 저렴...수산물 30% 이상 올라
작황 부진에 사과·배 가격 상승...대형마트 34곳 배 가격 전년비 32% ↑
aT·농식품부, 물가 안정 총력...28일까지 농축산물 최대 30% 할인 적용

올해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얼마가 필요할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는 26만원이, 대형마트에서는 34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체 구입 비용이 지난해보다 4% 저렴한 가운데, 과일과 참조기, 다시마, 약과 등은 전년보다 비싸고 소고기, 계란, 대추,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추석을 9일 앞둔 지난 20일 기준 대형마트 34곳에서 배 가격은 5개에 평균 1만6283원으로, 작년 추석 열흘 전 시기(추석 성수기)와 비교해 32.4% 올랐다.

전통시장 16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배 5개 평균 가격은 1만7600원으로,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14.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가격(5개)은 전통시장에서 1만5528원으로 작년보다 2.7% 올랐고, 대형마트에서는 1만7580원으로 19.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과와 배 가격 상승은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 폭우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광주지역 홍로 10개 소매가격은 전통시장 3만3300원으로 전년 2만4200원보다 비싸고, 대형마트도 올해 3만3360원으로 전년(2만7388원)보다

가격이 높다. 수산물 가격도 작년 추석을 앞둔 시점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기 3마리 가격은 전통시장 6741원, 대형마트 1만5156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5.4%, 31.8% 비쌌다. 다시마도 대형마트 기준, 전년보다 40% 정도 비쌌다.

쌀 가격은 전통시장에서 2kg에 5585원으로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7.4% 올랐고, 대형마트에서는 5685원으로 25.7% 상승했다.

밤 가격도 전통시장에선 작년과 비교해 7.3% 높았고,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14.8% 올랐다.

재료 수입 가격 상승으로 약과 가격도 뛰었다. 약과는 전통시장에서는 150g에 1813원으로 작년보다 20.4% 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 가격은 10.4% 오른 2025원이다.

이밖에 계란 가격은 작년 추석 성수기와 비교해 전통시장은 3.5%, 대형마트는 5.1% 각각 떨어졌다.

부담으로 작용했던 소고기는 공급량이 늘어나

면서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소고기 우둔살 가격은 전통시장 기준 1.8kg에 7만5508원으로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11.2% 하락했고, 대형마트에서는 8만1884원으로 16.0% 낮아졌다.

소고기 양지 가격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작년보다 각각 10.6%, 7.9% 하락했다.

aT는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0만4434원으로 전년보다 4.0% 줄어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비용은 26만6652원으로 대형유통업체(34만2215원)보다 22.1%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T는 농식품부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의 할인을 적용한다. 1인당 할인 한도를 대형마트 등은 2만원, 전통시장은 3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추석맞이 사랑의 축산물 나눔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22일 영암축협,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남도지부와 함께 '추석맞이, 사랑의 축산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암 영애원과 노인전문요양원에 400만 원 상당의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계란)을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이웃에 관심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21일 광주시 광산구 명화동 지정저수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임직원들이 '내 고향 물 살리기 캠페인'을 펼친 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제공>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내 고향 물 살리기 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지난 21일 광주시 광산구 명화동 지정저수지에서 수질보전과 안전 영농을 위한 '내 고향 물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어촌공사 대표 ESG 사업으로 추진하는 '쓰담캠페인' (쓰레기 담기 캠페인) 활동을 통해 깨끗한 저수지 만들기과 수질 환경 개선 인식을 높여 청정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저수지 내 부유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시행했다. 또 지정저수지를 찾는 낚시꾼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버리지 않고 되가져가기' 등 자연보호에 동참해 주라고 당부하는 캠페인도 병행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이달의 새농민상'에 삼도농협 임도주·손미자 부부

9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삼도농협 조합원 임도주·손미자 부부(사진)가 선정됐다. 임씨 부부는 방울토마토와 가지를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양액 재배방식을 도입해 작물 생산성 향상과 우수 농산물 생산에 노력해왔다.

또 고령농업인을 위한 나눔 봉사과 마을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달의 새농민'으로 수상됐다.

이달의 새농민상은 1965년부터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운동 3대 정신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 최고의 선도농업인 부부에게 농협중앙회가 수여하는 상이다.

고성신 농협 광주본부장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미래농업인에게 농업기술 선진화 보급에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미래농업인에게 농업기술 선진화 보급에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완도군, 급수 비상공급망 구축 협약



상수관로 31.1km 등 설치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지난 22일 완도군과 상시 가뭄 지역인 보길·노화도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완도군 보길(노화) 급수구역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물 공급 취약지역인 완도군 보길(노화)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약 68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상수관로 31.1km(육상관로 21.9km, 해저관로 9.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등 시설용량 하루 1000㎥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설계와 공사를 담당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 기반시설을 마련해 항구적 가뭄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인도 영·섬유역본부장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유역 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1509001 | 휴먼이엔티주식회사 | 문의 전화 1644-6430 |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